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소식

- ◆ 10 월은 교회 전례력으로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 ◆ 성가대 가을 음악회 안내
 - 일시: 10월 31일(토), 저녁 7시
 - 장소: Hughes Hall
 - 주소: 1899 North College Road Columbus, OH 43210
 - 본당의 미사 전례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성가대에서 신자분들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작은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느님께서 주신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음악회를 통해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김제준 구역 가정미사 안내
 - 일시: 10/30 (금) 저녁 8시
 - 장소: 구역장님 자택
 - 주소: 8576 Copperview Dr. Dublin, OH 43016 (614) 218 - 2662
- ◆ 친교 준비 및 정리 봉사자
 - 친교준비: 김도균 (10/25)
 - 정리봉사: 김제준 구역 (10월)

◆ 학생 신심단체 안내

단 체	정기모임	단장 연락처
상지의 옥좌	주일미사 후	안유신 레오 614-203-5046
증거자의 모후	평일미사(금) 후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바다의 별	주일미사 후	김준식 안젤모 614-403-8510
성가대	주일 오전 11시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

◆ 구역 가정미사 안내

일 시	가정미사구역
10월 9일 (금)	황석두 구역
10월 16일 (금)	이호영 구역
10월 23일 (금)	정하상 구역
10월 30일 (금)	김제준 구역
11월 6일 (금)	김효임 구역
11월 13일 (금)	학생구역(레지오/성가대)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BAA는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카톨릭 교육사업, 성소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4,4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감사헌금: 김도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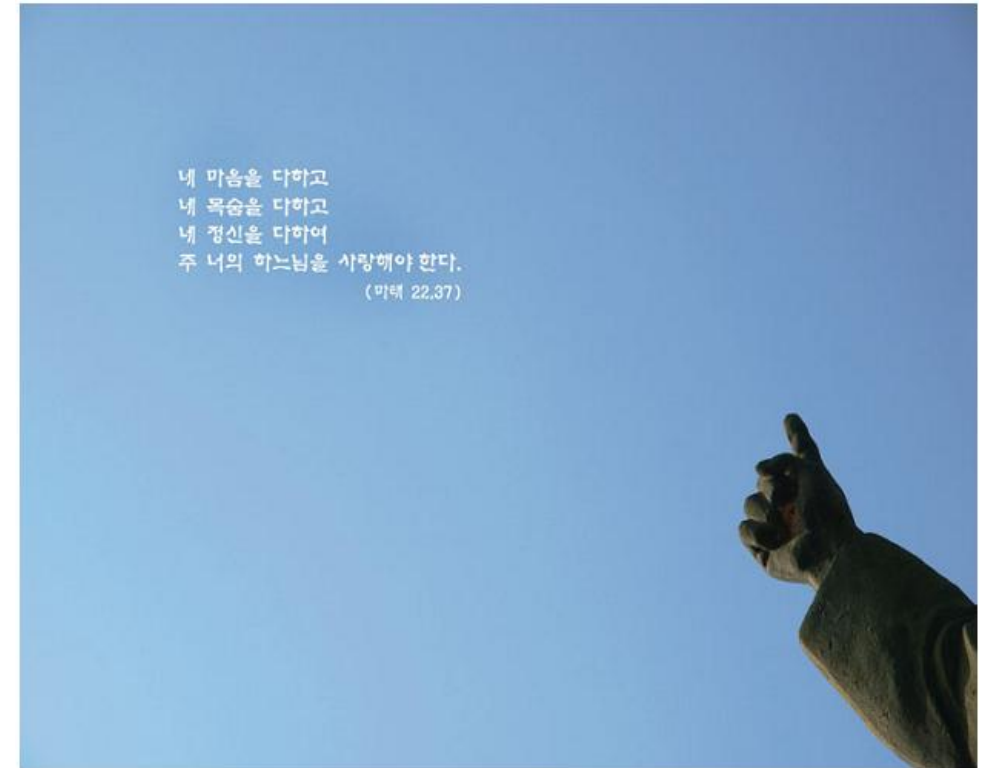
주 일 헌 금	\$526.00
감 사 헌 금	\$100.00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 30 주일 October 25, 2009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1,7-9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가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히브리서 5,1-6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음 마르코 10,45ㄴ-52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틀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20단 2명	26,287단 186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20단 2명	22204-10/11/09 (293주)

♣ 총누계: 221,275단 12,821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0월 25일	11월 1일
해설자	서경환	박귀영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20 ♫ 봉헌: 212
 ♫ 성체: 170, 174 ♫ 파견: 237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12년간 하혈하던 여인(마르 5,34)과 예리고의 소경 바르티매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나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주의를 끈 인물들이다. 특히 바르티매오는 많은 이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의 자비를 거듭 부르짖는 집요함을 보인다. 그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느님에게까지 다다라서 마침내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킨다(탈출 3,7-10).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불굴의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이다. 구경꾼의 호기심을 채워 주는 마법과 달리, 예수님의 기적은 수혜자의 강한 믿음과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실현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 간에는 본인의 믿음과 노력이 먼저 요청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영적인 장애를 지니고 살아간다.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르티매오처럼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질긴 믿음이 요구되고 좌절과 시련에서 발떡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 내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에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